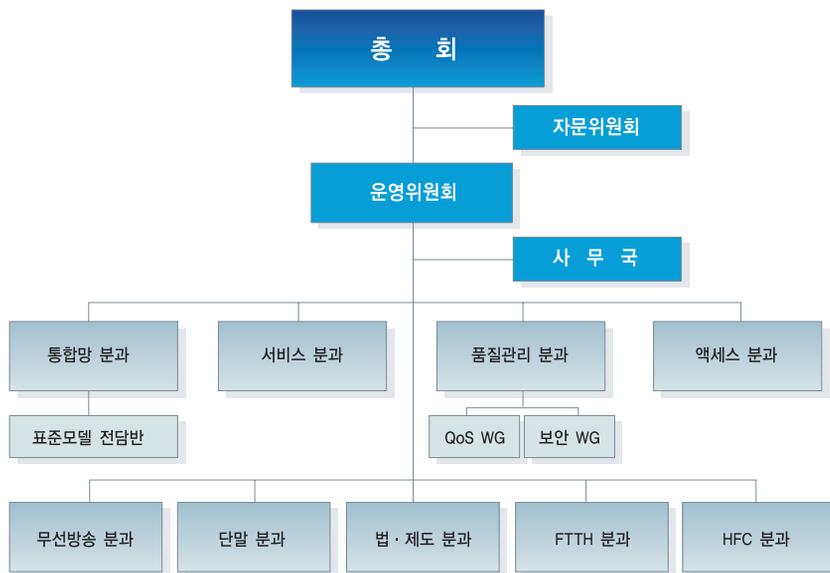




## 조직구성

BcN 포럼은 총회와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워킹그룹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총회는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포럼 표준 관련 기술 제정, 의장과 감사 선출 등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며, 자문위원회는 포럼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총회 의장을 자문하며, 총회 의장이 부의한 중요 사항을 다룬다. 운영위원회는 포럼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사항을 다루며, 분과위원회는 포럼의 목적에 따라 기술분야별 혹은 사업분야별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하부 워킹그룹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포럼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매년 연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 과정을 거치며, 각 분과별 현안사항에 대한 별도 분과위원회 회의가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BcN 포럼은 올해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각 분과별 2006년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BcN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림 1] BcN 포럼 조직도



KT 이상훈 부사장



고려대 박진우 교수



한국전산원 신상철 단장



한국외대 한치문 교수



## 주요 활동

BcN 포럼의 주요 활동으로는 정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 그리고 각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BcN 정책 수립 및 국제 포럼 활동, 민간 차원에서 포럼 간 공동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 표준화 활동 및 국내 단체표준 제정에도 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전략적 핵심 사업 추진 및 정책 지원에 대해 BcN 표준모델 개발과 표준모델 활용 및 보급 촉진, BcN 서비스 수익모델 및 시범 사업화 연구, BcN 범국가적인 기술정책 및 전략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전략적 핵심 사업추진 및 표준화, 기고서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BcN 표준모델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분석을 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표준화 기구(ITU, ETSI, IETF 등)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주요 외국 사업자, 제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의 BcN 관련 기술개발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모델에 대한 수요여측 조사를 하고 있다.

둘째, BcN 표준모델 개발에 있어서 BcN 서비스 발굴을 위해 BcN 서비스 모델에 따른 망 구조 및 단계별 망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연구개발망 시험·검증, 시범서비스 및 상용망 적용 등 기술개발 관련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셋째, 표준모델 활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해 BcN 관련 사실표준(de facto standards) 제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BcN 표준 문서체계 및 제·개정 절차를 정립하고 표준모델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BcN 서비스 수익 모델 및 시범 사업화 연구와 관련하여 광대역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연구개발망을 통한 시범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 외에 범국가적인 BcN 기술정책 및 전략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통합망 진화 비전과 통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전략을 도출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며, 광대역통합망 관련 법/규제 방안을 검토하거나 광대역통합망 기술 및 표준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주요 표준화 및 학술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외 최신 기술 및 표준화 동향분석은 올해 30건을 목표로 ITU-T, MSF, IETF, ISC, Parlay Group 등의 국제 표준화 기구와 기술 선도 기관 및 국내 BcN 관련 주요 연구기관, 학회, 표준화 단체 등의 BcN 관련 연구 및 표준화 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각 분과별로 관련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 표준화 활동과 관련하여 올해 77건을 목표로 BcN 분야 국제 표준화 단체(ITU-T, MSF, IETF, IPCC, Parlay Group 등)의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여 관련 이슈 및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안 기고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표준화 활동은 올해 28건을 목표로 분과 위원회를 통한 통합망 관련 표준화 Process 정립, BcN 표준 연구반 구성 등을 통해 전문 분야별로 국내 BcN 포럼 표준 문서 작성 및 TTA 단체표준을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한 BcN 관련 학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2] 2006년 BcN 포럼 기술 워크숍 및 총회

## 향후 계획

BcN 포럼에서는 향후 각 분과별 활동 계획을 새로이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IT 표준화 전략포럼 중 최우수 포럼을 고수하기 위하여 표준화 및 학술 활동으로써 총 60건을 국제 표준안 기고에는 130건을 목표로 함과 함께 ITU-T, MSF, IETF에 지속적으로 의장단 활동을 함으로써 대내외 활동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를 통해 국내 표준화 활동도 60건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BcN 표준화는 기존 특정 망에서만 적용되던 서비스가 네트워크 환경에 무관하게 제공될 수 있어 다양한 융합 서비스 표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며, 기존 유선 및 무선/이동 망 기술이 통합되고, 나아가 인터넷 및 방송망 기술이 통합되어 궁극적으로 동일한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IETF, MSF, 및 3GPP 그룹 등에서 매우 활발하게 개발 중인 각종 서비스 관련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국내 통신사업자, 응용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업체 등의 NGN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의 IT839 정책에 3대 인프라 중의 핵심에 있는 BcN 기술개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상호운용성 확보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포럼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TTA**

